

배두나 “고지식하고, 날카롭게, 착하게”

영화 ‘다음 소희’서 경찰 오유진 역 맡아
2014년 ‘도희야’ 이후 정주리 감독 재회
“정주리가 고지식한 사람이라 좋더라”
정 감독과 동지에 느끼며 영화 만들어



“정주리 감독은 고지식해요. 전 그런 사람이 좋아요. 게다가 영화를 너무 잘 만들잖아요.”
배우 배두나(44)에게 정주리 감독과 다시 만나 작업한 이유를 묻자 이런 대답이 돌아왔다. 배두나는 9년 전 정 감독의 장편 영화 데뷔작 ‘도희야’에 출연했다. 배두나는 당시에도 한국영화를 대표하는 배우이자 이미 전 세계 무대에서 활동하던 글로벌 스타였다. 그런 그가 무명 감독이 만든 작은 규모 작품에 출연했다는 것만으로도 크게 화제가 됐다. 물론 배두나의 안목은 틀리지 않았다. 당시 ‘도희야’는 관객과 평단의 고른 호평을 이끌어냈고, 정 감독은 앞으로 필모그래피가 가장 기대되는 감독 중 한 명으로 떠올랐다. 그리고 나서 9년, 배두나는 정 감독의 새 영화 ‘다음 소희’를 또 한번 망설이지 않고 택했다. ‘도희야’를 하기로 했을 때, 배두나는 정 감독에게 “이 영화가 세상에 꼭 나왔으면 한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다음 소희’를 하기로 한 이유에 대해 묻자 배두나는 이번에는 이렇게 말했다. “전 이 분(정주리 감독)의 영화를 너무 좋아해요.”
‘다음 소희’는 만만치 않은 영화다. 2017년 1월 전주 아중저수지에서 숨진 채 발견

시 그런 사람 중 하나인 것 같다고 말하며 자신을 “옛날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그리고 배두나는 그런 정 감독에게 동지애를 느끼면서 ‘다음 소희’를 함께 만들어 갔다고 했다. 일반적으로 배우들은 당연히 촬영만 하면 된다. 프리(pre) 프로덕션 과정이나 포스트(post) 프로덕션 과정엔 참여하지 않는다. 참여할 이유도 없다. 하지만 배두나는 ‘다음 소희’가 영화로 만들어져 극장에서 상영되길 바라면서 ‘다음 소희’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지켜봤다고 했다. 편집 중이었던 영화를 칸에 출품해보라고 정 감독에게 넌지시 말하기도 했다(후반 작업이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칸에 출품한 ‘다음 소희’는 국제비평가주간 폐막작으로 선정됐다). “정 감독이 정말 믿음직 했어요. 타협 없이 본인이 원하는 걸 밀고나가는 모습이 멋지더라고요. 꺾이지 않는 마음이었어요. (웃음) ‘도희야’ 때보다 강해졌더라고요.” 그러면서 배두나는 이런 농담을 던졌다. “전 이 정도로 타협을 안 하지는 않아요.”

최근 배두나는 유독 경찰 역할을 자주 맡고 있다. 드라마 ‘비밀의 숲’ 시리즈에서, 영화 ‘브로커’에서 그리고 ‘다음 소희’까지 최근 연기한 캐릭터 대부분이 경찰이었다. 근래 들어 경찰을 유독 반복해서 맡는 이유를 묻자 배두나는 “‘다음 소희’로 썰기를 박으려고 했다”고 말하며 웃었다. 그러면서 그는 “직업이 경찰이라는 게 똑같은 뿐 모두 다른 인물이기 때문에 경찰을 자주 연기한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은 없다”고 덧붙였다. “전 어릴 때부터 관찰자 역할, 그러니까 감독의 시선이 담긴 캐릭터를 자주 맡았어요. 그런 맥락에서 제가 이제 나이를 먹다보니까 제가 연기하는 인물의 직업이 경찰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전 싫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경찰 역할을 피하지 않을 거예요.”

시종일관 진지하면서도 유쾌한 분위기 속에서 이어진 인터뷰였지만, ‘다음 소희’라는 제목에 관해 이야기하는 대목에서 배두나는 결국 눈물을 보이고 말았다. 소희 같은 아이가 다음에는 나오지 않아야 하겠지만, 또 나올 수도 있고 지금도 소희와 같은 처지에 있는 아이들이 있을 거라는 게 배두나의 생각이었다. 그래서 그는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소희와 같은 상황에 있는데 소희와 같은 선택을 하지 않은 사람들, 그들은 버티고 있는 거 같아요. 버티주는 게 정말 고마워요. 그렇게 버티는 분들에게 이 영화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합니다.”

배두나는 요즘 혼자 생각하는 시간이 많다고 했다. 사색을 하면서 마음을 가다듬고 일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는다고 말했다. 그리고 걱정도 많이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아이들에 관해 얘기하는 작품에는 꼭 참여하려고 한다는 애걸 했다. “저는 지금 제 개인적인 걱정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걱정을 하는 거죠. 아이들에 관한 것도 그런 겁니다. 아이들은 아직 우리보다 약하고 잘 모르잖아요. 더 보호해줘야죠. 제가 너무 나이브(naive)한가요. 그래도 그게 요즘 제가 하는 생각들이에요.”

배우 이승기·이다인, 종교 뛰어넘는 사랑

4월7일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서 백년가약



배우 이승기(36)와 이다인(31·이라윤)이 아품을 입고 백년가약을 맺는다.

8일 이다인 소속사 9아트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두 사람은 4월7일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결혼식을 올린다. “친인척, 가까운 지인들이 참석할 예정”이라며 “비공개로 치뤄 구체적인 일정을 상세히 전하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전날 이승기는 인스타그램에 친필 편지로 결혼을 발표했다. “올해는 여러모로 장문의 글을 쓸 일이 많은 것 같다. 오늘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전하고자 한다”며 “내가 사랑하는 이다인씨와 이제 연인이 아닌 부부로서 남은 생을 함께 하기로 했다. 프리포즈를 했고 승낙을 받았다. 4월7일 결혼식을 올린다”고 알렸다.

“평생 책임질 사람이 생겼기에 기쁜 마음으로 이 소식을 직접 전하고 싶다. 그녀는 마음이 따뜻하고 사랑이 많은, 영원히 내 편에 두고 싶은 사람이다. 함께 기쁨을 공유하고, 살다가 힘든 일이 있더라도 잡은 손 놓지 않고 시련을 극복하고 싶다. 우리 두 사람의 앞날을 응원해주시길 바란다. 앞으로도 많이 나누면서 행복하게 살아가겠다.”

두 사람은 2021년 5월 열애를 인정한 지 2년 여 만에 부부 연을 맺게 됐다. 당시 강원도 속초의 이승기 할머니 집에 함께 방문한 모습이 공개됐고, 양측은 “5-6개월 전부터 좋은 감정을 가지고 만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다인은

텔런트 겸미리(58) 딸이자 이우비(33) 동생이다. 양아버지는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 2018년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25억원을 선고 받았다. 이 때문에 일부 팬들은 이다인과 열애를 반대하며 이승기 집 앞에서 트럭 시위를 벌였다. 결별설이 돌았지만, 이승기는 지난해 6월 “열애설 후 어떠한 입장이나 신변 변화가 없기에 추가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승기 소유 성북동 단독주택에 이다인이 사내이사로 등기된 회사가 들어와 결혼설이 불거졌다.

특히 두 사람은 종교를 뛰어넘어 결실을 이뤘다. 유튜버 이진호는 “연예인 주선으로 (첫 만남이) 이뤄졌다. 평소 이승기를 흠모하던 이다인이 지인에게 소개를 부탁했고, 골프를 치며 연인으로 발전했다”면서 “(불교인) 겸미리가 이승기에게 영주를 주며 사위로 인정했다. 이승기는 원래 기독교지만, 이다인을 위해 절을 자주 찾은 정도로 정성을 쏟았다. 초창기 이승기 집안에선 이다인을 반대했지만, 이승기 고집을 꺾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다인 본명이 이주희인데 지난해 6월 이라윤으로 바꿨다. 이유비도 이소율로 개명했다”며 “불교식 이름이다. 겸미리씨가 딸들이 그동안 잘 안 돼 미래를 위해 바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승기는 지난해 말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와 음원수익 미정산 관련 갈등을 빚었다. 후크에 내용증명을 보냈고, 전속계약을 해지했다. 후크는 이자를 포함해 음원 정산금 약 54억원을 지급했다며 분쟁을 종결하기 위해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지만, 이승기는 “법정에서 다룰 것”이라며 “미정산금은 전액 기부할 예정”이라고 맞섰다. 서울대어린 이병월에 20억원, 대한적십자사 5억5000만원, 카이스트 3억원을 기부한 상태다. 이승기는 지난해 ‘법대로 사랑하라’로 KBS 연기대상을 받았으며, 영화 ‘대가족’(감독 양우석) 촬영 중이다. 이다인은 하반기 방송하는 MBC TV 사극 ‘연인’으로 3년 만 안방극장에 복귀할 예정이다.

국정원 장혁·살림 9단 장나라...네번째 호흡

tvN 드라마 ‘패밀리’ 4월 첫 방송 예정

배우 장혁과 장나라가 ‘패밀리’로 9년 만에 만난다.

tvN 드라마 패밀리라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신분을 위장한 국정원 블랙요원 ‘권도훈’(장혁)과 완벽한 가족을 꾸리는 부인 ‘강유리’(장나라) 이야기다. 장혁과 장나라는 ‘명랑소녀 성공기’(2002) ‘운명처럼 널 사랑해’(2014) ‘2014 드라마 페스티벌-오래된 안녕’에 이어 네 번째 호흡이다.

도훈은 무역상사 사원으로 신분을 위장한다. 신속 정확하고 뒤처리 깔끔한 저격수다. 바빠서 가족들에게 소홀하지만 유리를 사랑하는 마음만은 충만하다. 유리는 살림 9단이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며, 사랑스러운 모습 뒤 비밀을 감춘 인물이다.

채정안은 도훈 사수인 국정원 공작관 ‘오천련’을 맡는다. 천련은 남들이 볼 땐 화려한 솔로생활을 즐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 번 이혼해 사람이 고르고 외롭다. 도훈만큼은 끝까지 가족을 지키길 바라 물심양면 돕는다. 김남희는 도훈·유리 가족을 찾아온 불청객 ‘태구’로



분한다. 자신을 증명하는 일과 순간의 쾌락 앞에서 충동적인 인물이다. 과거 자신에게 한 줄기 빛 같았던 유리 삶을 혼든다.
‘환혼’(2022-2023) 장정도 CP가 연출한다. 4월 첫 방송.

투바투, 美 빌보드 6개 차트 정상...시저 ‘빌보드200’ 2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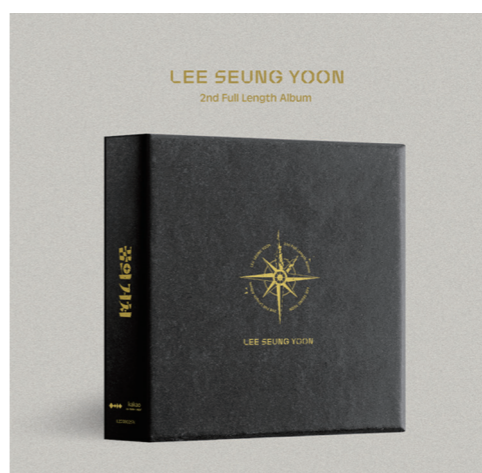


‘7주 연속 정상’ 시저, 투모로우바이투게더에 1위 자리 내줘

K팝 그룹 다섯 번째로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차트 ‘빌보드 200’ 정상에 오른 그룹 ‘투모로우바이투게더’(TXT·투바투)가 ‘아티스트 100’ 차트 등 빌보드 내 다른 여러 차트도 휩쓸었다.
7일(현지시간) 빌보드가 발표한 최신 차트(2월 11일 자)에 따르면, 투모로우바이투게더는 ‘빌보드200’과 ‘아티스트 100’ 차트를 비롯해 6개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다. 특히, 투모로우바이투게더는 ‘아티스트 100’에서 직전 기록인 3위에서 2계단 높은 정상에 오르며 자체 최고 순위 기록을 경신했다.
‘이름의 장: 템페이션’은 ‘빌보드 200’을 비롯해 ‘톱 앨범 세일즈’, ‘톱 커런트 앨범 세일즈’, ‘월드 앨범’ 차트에서 정상에 올랐다. 또 이 음반은 ‘테이스트메이커 앨범’에서 3위, ‘캐나다인 앨범’에서는 15위에 안착했다.
타이틀곡 ‘슈가 러시 라이드(Sugar Rush

Ride)’는 ‘월드 디지털 송 세일즈’ 차트 1위를 차지했다. 이 외에도 ‘디지털 송 세일즈’ 15위, ‘글로벌 200’ 44위, ‘글로벌(미국제외)’ 30위, ‘캐나다인 핫 100’ 73위에 자리했다.
특히 ‘슈가 러시 라이드’가 ‘버블링 언더 핫 100’ 차트 4위에 오른 점도 주목할 만하다. ‘핫 100’에 진입하지 못한 곡들의 순위를 매기는 이 차트는 ‘핫 100’ 차트와 동일하게 곡 판매량, 라디오 에어플레이, 스트리밍 데이터를 기반으로 선정하는 만큼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성장세를 여실히 보여 준다고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전했다.
이번 주 빌보드 차트에서 K팝은 단연 하이브 레이블즈가 강세다.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직속 선배인 글로벌 슈퍼 그룹 ‘방탄소년단’(BTS)은 단체 그리고 솔로 음반으로 미국 빌보드 차트에서 장기집권하고 있다.

이승윤 ‘꿈의 거처’ 발매 1주일 만에 8만장



이승윤의 정규 앨범 ‘꿈의 거처’가 발매 일주

일 만에 총동 8만 장 판매를 기록했다.
지난 1월 26일 이승윤은 2년 만에 정규 앨범 ‘꿈의 거처’를 발표했다. 이 앨범에는 타이틀곡 ‘꿈의 거처’를 비롯해 지난해 12월 발표한 ‘웃어 주었어’와 올해 1월 공개한 ‘비산 속취’ 등 총 12곡이 수록됐다.
꿈의 거처는 지난 3일 총동 판매량 8만 장을 기록했으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판매량이 늘고 있다.
이와 함께 첫 전국투어 매진 소식도 전해졌다. 1월 30일 오픈된 ‘2023 이승윤 전국투어 콘서트 도킹’ 서울 공연이 3분 만에 매진됐으며, 2월 3일 순차적으로 오픈된 대구, 부산, 대전 등 도시도 3분 만에 모두 매진됐다.